

송계월 서사 연구*

진선영**

차례

1. 들어가며
2. 송계월 '겹'서사의 의미
3. 자기서사의 근원으로서 함경도
4.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실험적 현장
5. 여성 교육과 여성 직업 사이의 간극
6. '적성'(赤城)으로 글쓰기
7. 나오며

〈국문초록〉

송계월은 '애라'나 '유라'가 아니다. 송계월은 '송계월'이다. 이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송계월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부분적으로 소개된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송계월의 서사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여 송계월이라는 신여성이 식민지 현실을 통해 계급주의를 자각하는 과정으로서의 '자기서사'와 그 형상화적 결과물인 문학텍스트(문학 서사)를 분석하였다. 이 '겹' 서사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와 분석이 송계월의 서사를 문학사, 여성사, 제국주의사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377)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송계월의 고향이자 요양지였던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은 척박한 환경과 불모의 땅이라는 공간적 의미와 함께 기질을 배태한 요람적 성격을 지닌다. 송계월은 강인한 성격과 생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을 함경도적 기질에 두고 있으며, 이를 사회에서 실천하는 현장 경험은 경성여자상업학교 시절에 이루어진다. 계월은 여학교 시절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운동과 투쟁으로 행동화하였다. 이후 데파트 걸 체험은 학교 교육의 이상주의와 현실의 간극을 체험하는 장이었고 이를 통해 여성 문제의식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계급의식을 점화하게 된다. 개벽사에 입사한 후 ‘붉은 성(赤城)’이라는 필명은 자신의 입론을 사회주의 혹은 계급주의(赤)적 여성에 두고 전투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서사화하겠다는 당찬 레테르이다.

송계월은 여성의 문제에 계급적 이해를 우선하고 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노동자 농민 해방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급 해방을 위해 강력한 투쟁과 집단적 연대를 강조한다. 송계월이 평론이나 칼럼을 통해 계급주의적 사고의 민낯을 드러냈다면, 소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작 정신으로 하여 강력한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으로 무장한 프로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르포적 형태의 수필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거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묘파(描破)하거나 함경도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점묘하는 가운데 제국에 저항하는 여성적 지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송계월의 문학 서사는 계급주의적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한 결속과 투쟁을 강조하는 선동성과 정론성을 갖는다.

송계월의 삶과 문학은 당대 신여성들의 갖가지 모습을 압축하는 전형이었다. 신학문과 새로운 문물예의 동경, 식민지 조선 현실에 대한 고민,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투사,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창작행위, 여성을 둘러싼 소문 등은 고스란히 그녀의 삶과 작품 속에 녹아 있다. 그러므로 송계월의 ‘겹’서사는 식민지 과도기를 살아낸 한 신여성의 미시사가 아니다. 신여성이라는 존재론적·사회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당대와 길항하였다. 이것이 굼직한 식민지 역사와 겹쳐질 때 송계월의 삶은 식민지 여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송계월, 자기서사, 겹서사, 복청, 사회주의, 계급주의, 여성주의, 적성(赤城)

1. 들어가며

식민지 시대 동반자 작가로 분류되는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1938)¹⁾에는 ‘애라’라는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애라’는 『중앙평론』의 기자이자 소설가로, 외모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 모든 남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핏기 없는 얼굴’에 ‘정열을 이성으로 누르’고 ‘예의와 위엄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전형적인 인텔리 여성이다. 애라는 “어떤 전문학교 교수하고 어떻다는 둥 소설가 누구하고 어떻다는 둥 평론가·잡지기자·사회운동가 누구누구하고 어떻다는 둥” 몹시 시끄러운 세상 소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애욕을 주제로 한 그녀의 소설 때문에 항상 문단의 가십거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여성이다. 결국 애라는 자신을 둘러싼 남성들 간의 다툼에서 정조를 잃고 폐병으로 요절한다.

유진오는 식민지 시대 ‘천재’라 불릴 만큼 사회적, 문단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수난의 기록』은 그가 2차 공백기²⁾ 후 첫 번째 발표한 작품으로, 카프 해체 이후 많은 소설가들이 갈 길을 잃었던 터라 카프에 이념적으로 동조했던 유진오의 재등장은 문단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

1) 유진오, 『수난의 기록』, 『봄』, 한성도서, 1940, 377쪽.

2) 등단 초기부터 사회의식을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당대 현실의 제문제에 작품을 풀어낸 유진오는 『오월제전』(1932) 발표 이후 만 2년간 소설 창작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제1차 공백기라 한다. 1차 공백기를 거친 후 처음 발표된 작품이 『행로』(1934)이다. 2년 동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사령장』을 끝으로 두 번째 공백기에 접어든다. 그리고 2차 공백기를 접고 첫 번째로 발표한 작품이 장편 『수난의 기록』(1938)이다.

했다. 하지만 김문집의 평가대로 『수난의 기록』은 ‘송계월이라는 문제의 가인의 모델적 흥미와 그를 이용함으로써 작자 자신의 영웅적 이상성을 재인식’³⁾ 시키는 소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유진오는 식민지 시대 실존한 여성인물을 사후 소환하여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낭만적으로 재유통함으로써 자신의 후기 소설세계를 출발시키고 있다.

김문집이 언급한 것처럼 소설 속 ‘애라’와 ‘유라’⁴⁾는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 송계월이다. 송계월은 소설 속 애라와 유라처럼 갖가지 소문에 시달리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요절하였다. 특히 그녀는 사망 후에도 동료 남성작가의 작품 속에서, 문단 재담가들의 후일담에서 낭만적으로 재소환 되어 가공되었다. 실제 송계월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부인기자, 여성문인의 삶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냈지만 결국 기생, 이혼녀, 백철의 애인, 처녀출산 등의 소문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목숨이 붙들린 셈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후자의 소문 속에서 편집된 송계월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여성의 삶을 살아낸 송계월의 ‘실제’ 삶을 추적하고자 한다. 송계월은 근대적 여성교육을 통해 여성의 자각을 실천의 현장에서 보여준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근대 잡지사에서 신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풍속과 담론을 재현한 『신여성』지에서 부인기자, 작가, 편집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문을 통해 신여성을 길들이려 했던 제도에 대항하여 가장 신여성적인 특성으로 자신을 정치화하였다. 그러므로 송계월의 삶과 문학을 추적하는 작업은 근대 여성사와 문학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처럼 송계월에 대한 접근은 사학, 여성학, 언론학, 문학의 융합 지점에 놓여 있기에 각 영역의 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로서 먼

3) 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패강행』, 『동아일보』, 1938.1.21.

4) 이효석의 단편소설 『마음의 의장』, 『수난』의 주인공인 ‘유라’형 인물은 유진오의 소설 『수난의 기록』에 나타난 ‘애라’와 함께 개벽사 여기자로 요절한 송계월을 모델로 한 인물로 보인다. 김주리, 『근대소설과 육체』, 한국학술정보, 2009, 246쪽.

저 송계월이라는 신여성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송계월의 서사를 고찰하여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송계월의 사회·역사의식, 작품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천작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송계월 ‘겹’서사의 의미

송계월의 서사는 신여성으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민족, 여성, 계급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결과물이었다. 이때의 서사는 중의적 의미인데 식민지 시대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부인기자/여성문인으로 살았던 송계월 개인의 전기적 삶에 대한 ‘자기서사’와 그녀의 ‘문학적 글쓰기로서의 서사’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오늘날의 자서전은 자기서사의 대표적 유형이며 이외에도 자전적 소설, 편지, 일기,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의 자기서사가 존재한다. 여성문학의 전통에서 자기서사는 여성문인의 존재론적 위치와 현장을 재구하는 실증적 성격과 함께 당대 사회에서 발화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여성목소리를 재현하는 중요한 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⁵⁾

송계월의 자기서사와 문학서사, 이 ‘겹’서사에는 문학작품 일반과 기자로서 수행했던 글쓰기 즉 칼럼, 인터뷰, 참관기, 방문기, 좌담회, 편집후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신여성』지의 편집인으로 활약했던 송계월은 ‘편집후기’를 또 다른 서사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기자로서는 가급적 개인적 사건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노력했던 그녀는 편집을 마친

5) 박혜숙, 『여성과 자기서사』,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17~240쪽.

후 편집의 과정, 계획, 감상을 단편적으로 간단히 적는 편집후기에서, 기사에서 쓰지 못한 개인적 사건을 에세이적 형태로 보충하고 있다. 즉 실제 수필의 형태로 발표된 글은 ‘르포적’ 형태를 취하고, 편집후기에서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한 이야기나 귀향 체험, 앞으로의 지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함께 편집인으로 활동했던 편집원의 편집후기와 대조해보면 더욱 더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송계월의 『신여성』 편집후기는 송계월의 전기적 연보를 보충하거나 당시의 심정, 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연구대상의 가치를 지닌다.

송계월의 서사는 자신의 삶을 근거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진술하는 양상을 갖기 때문에 여성적 정체성 형성 및 식민지 역사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초 자료(출생년도, 본적지, 학력사항, 사망일자)조차 확보되지 못한 송계월 삶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겹’서사를 통해 고찰하는 통합적인 이해야말로 송계월을 부인기자나 여성문인이냐는 이분법적 존재 근거에 대한 양분된 시선을 지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⁶⁾

3. 자기서사의 근원으로서 함경도

송계월은 1910년 12월 10일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신창리 271번지(본적지)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송계월의 출생년도에 대해 1910년생과 1911년생, 1913년생 세 가지 설이 있었는데 1931년 경성여상 제3회 졸업대장 확인 결과 명치(明治) 43년생 즉 1910년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6) 그간의 선행연구는 송계월의 비문학적 측면(소문, 외모)이 전면화 되고 문학적 측면이 그 뒤를 받침하는 형상이었다. 송계월의 문학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비문학적 측면이 전면화 되어 문학적 측면을 압도하다 보니 ‘여류문사 시비론’이나 저널리즘과의 영합 등의 문단적 타박을 받게 된 것이다. 송계월 관련 선행 연구는 이 논문에 종합되어 있다. 진선영, 『송계월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54, 2013, 465쪽.

경성여상 졸업년도 또한 확정할 수 있었다.⁷⁾

송계월이 서울여학생만세운동 때 구속되어 작성한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하면 북청 고향에는 부 송치옥(宋治玉, 四三世), 모 이순희(李順姬, 四六世), 오빠와 언니, 여동생이 각 1명, 아우 2명 등 모두 8명이 있었고 생활은 전답을 소작시켜 그 수입에 의하여 중류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문서에 기록된 것과 달리 송계월의 자기서사나 다른 공문서에 보면 집이 매우 가난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비료회사에서 노동하는 남동생 창옥에게 보내는 서신인 『어촌 있는 동생에게』에는 추운 겨울 북극의 매서운 한파를 맞으며 비료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우에 대한 애달픔이 그려져 있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와도 모든 것을 배 주인에게 빼앗기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수놓아져 있다.⁸⁾

송계월은 신창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보통학교 때 은사 김용식(金龍植)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은 3·1만세운동 이후 신창 지방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신창시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인물로서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아 1980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인물이다. 송계월은 김용식으로부터 종교(기독교)와 민족주의적 사상을 영향 받게 된다. 김용식이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경이 쓴 글을 보면 송계월이 귀향할 때마다

7) 경성여상 졸업대장은 경성여상의 후신인 서울여상의 협조 아래 실물을 확인하였다. 송계월의 출생년도와 함께 졸업년도(1930년 설, 1931년 설) 또한 서울여학생만세운동으로 인한 검거, 감옥생활 때문에 확실치 않았는데 1931년 졸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1년 제3회 49명의 졸업생 중 송계월의 이름은 맨 마지막 110번째(졸업생 누계)에 기재되어 있다. 서울여상에는 경성여상 졸업대장 외에 다른 서류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8) ‘산산이 찢어진 옷 틈으로 부비고 들어가는 찬바람에 너의 여윈 살을 어여내는 그 등에는 한 섬에 비료섬이 업혀 있는 것과 깔깔한 조밥 덩어리를 떨면서 깨무는 그 형상이 지금 평안히 앉아 이 글 쓰는 나의 온 몸뚱이와 가슴 한 편을 콕 찢어주는 듯하다.’ 송계월, 『어촌 있는 동생에게-비료회사에서 노동하는 동생에게』, 『어린이』, 1931.12.

은사의 집을 찾아와 유족들과 시간을 함께 하며 은사를 추억했다고 한다.⁹⁾

송계월의 아버지 송치옥은 가난한 어부였음에도 신창 사회청년구락부 소속이자 북청 노동연맹 집행위원으로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동생 송동의 또한 북청 지방 최초의 반공의거를 주동하였다. 송계월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상 방면의 책과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였고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인한 행동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¹⁰⁾ 송계월이 여상 시절 학내 부조리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맹휴를 주도하는 등의 행동과적 기질은 이러한 유년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송계월의 작품은

9) 김경이 쓴 책에는 ‘개벽사 기자 송계월’이라는 시가 있다. 송계월의 전기를 보충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판단되어 전문을 실는다.

푸른 꿈이 늙실거리는 / 동해바다 신창(新昌)

명사와 해금강이 어우러져/파도치는 저 바다에서/젊음을 불태운 그대

신흥학교에서 배우고/서울여상에서 인생을 닦은 지 얼마던가/행복의 꿈 무르익을 때
저 남쪽 땅 광주학생사건에/피가 끓어/만세 만세 만만세/배달의 열/가슴에 베아리
쳤네

조국독립과 여권신장/사람의 몫을 찾으려고/피나는 싸움판 앞장에 서서/햇불 높이
들었던 송계월!

여름방학이면/세상 떠난 옛 스승 찾아/그 어린 아들인 나에게/머리를 쓰다듬어 주
던 손길/아직도 눈에 아롱거리네

그 아름다운 모습/쇠사슬에 묶여/서대문 감옥 신세 처절하여라

할키고 찢어진/꽃 봉우리/가슴앓이 멎든 채/새 삶을 찾아 개벽사 기자가 된/의젓
한 신여성 송계월

옥살이서 얻은 병 감당치 못해/피를 토하고 고향 내려와 신음하더니/아까워라 그
나이 24세/그 지성/그 투지/그 미모/모두 모두 버리고 떠나갔네

서울에서 백철 내려와 울고/동네방네 어른 아이 모두 다 통곡했네

꽃상여 들러 메고/“나는 간다 나는 간다/이제가면 언제 오라

이팔청춘 다 버리고/부모형제 다 버리고/나는 간다 나는 간다/이제 가면 언제오라”

장진 공동묘지/명사십리 해당화 꽃동산에/한 많은 가슴 묻혀

님도 울고/이웃도 울고/바다도 울고/나도 우네/우네 우네 지금도 모두들 울고 있네.

김경, 『디오게네스의 연인들』, 한국기독교연구원, 1992, 188쪽.

_____, 『한국 기독교 건국 공로자 열전』, 고려인쇄출판사, 2001, 217쪽.

10) 송계월, 『직업여성의 슬회, 학원시대와 현재생활』, 『신동아』, 1932.3.

약 50여 편가량이다. 소설 4편, 일기·수기·서한 7편, 평론 4편, 수필 9편, 칼럼 5편, 방문기·참관기 9편, 인터뷰 3편, 좌담회 5편 등이다.¹¹⁾ 이 중 약 15편 남짓에서 고향 북청 혹은 함경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송계월의 경성행이 '1925년 보수적인 가정환경에 반발하여 가출, 고향에서 도망치듯' 서울로 향한 것, 혹은 고향 북청에서 기생을 하다 야반도주하여 경성행을 감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¹²⁾ 송계월의 고향 관련 자기서사에는 그러한 기록이나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잡지 『삼천리』에서 여류문인을 대상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설문하는 자리에서 송계월은 서슴지 않고 '고향 북청'과 '어머니'를 꼽는다. 또한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특집 기사에서도, 『진정한 새해 새날은 오리니』라는 수필에서도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과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¹³⁾

북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동해바다를 끼고 있고 작은 어촌마을이다. 송계월의 고향이자 요양지(폐병으로 인한 여러 번의

11) 진선영, 앞의 논문.

12) 이석훈, 『유성-고 송계월의 애도』, 『신여성』 7권7호, 1933.7.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여기자 송계월』, 『여성과 사회』 14, 2002, 183쪽.

13)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일찍이 시인의 붓대를 멈춰두게 못 하던 저 멀리 베니스도 아니요, 나폴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 세계의 공원이라고 이르는 금강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꼭 한 곳뿐이에요. 그것은 나를 지금까지 곱게 길러 준 내 고향 북청(北靑)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담도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두 분도 없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송계월, 『가고 싶은 곳』, 『삼천리』 4권3호, 1923.3.

'열다섯 살에 고향을 떠나서 이래 5개 성상을 복잡한 서울에서 지내게 된 탓인지 어렸을 때 손목 잡고 놀던 동무들과 여름이면 목욕 감던 그 바다나 꽃 꺾으러 다니던 뒷동산이 늘 그리다. 실로 가장 꿈이 많던 그때에 이렇게 천천만만하게 열다섯 해 동안이나 뛰고 놀던 그곳이 언제나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말하여 소위 애향심(愛鄉心)이라고나 적어서 두면 마음이나 편할는지.' 송계월, 『북청의 점묘』, 『삼천리』 3권12호, 1931.12.

귀향)였던 북청은 척박한 환경과 불모의 땅이라는 지리적 의미를 갖지만 불모의 땅을 일구는 함경도인의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송계월의 사회적 기질을 배태한 요람적 성격을 지닌다.

함경도의 유년 시절은 송계월의 사상 형성에 주요한 동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계월이 지향하는 건강한 식민지 여성 생활의 모태를 제공하게 된다. 송계월은 식민지 여성의 유토피아적 지향으로 ‘함경도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과 경제력, 이를 통한 여성의 주체적 자립을 강조하였고 함경도적 ‘기질’을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식민’의 유효한 가치로 역설하였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여기에 있어 일천만 여성 동무들에게 자랑삼아 소개드릴 것이 있으니 咸鏡南北道 여성으로는 가장 자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될 경제적 독립 그것이다. 첫째로 이 부인들의 머리는 깨끗하게 清算하여 오히려 온 우주라도 혼자 정복하리라는 이러한 위대한 포부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여두려 한다. 더욱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 이야기 할 것은 어련에 네 다섯 더 많이 일곱 여덟 든 부인들이 집안일 다 보아가면서 구루마 끌고 다리를 넓적다리까지 옷을 걷고 팔은 소매 없는 양복모양으로 걷고 머리에는 머릿수건 쓰고는 온 시가를 함박 이고 구루마 끌고 다니는 것은 아마 이곳이 아니고는 보지도 듣지도 못할 형상일 것이다. (중략)

그 다음 어떤 부인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하여 또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러한 무수한 고생을 하여 나가 좋은 인물 많이 내는 예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북청의 점묘』)

향리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송계월은 1926년 15세에 서울에 대한 동경심과 항학열로 경성행 열차에 오르고 이듬해 경성여자상업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경성을 향하던 15세 소녀의 마음은 그녀의 담대한 기질만큼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¹⁴⁾

4.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실험적 현장

송계월이 1926년 경성에 도착하여 1927년 경성여자상업학교에 입학까지의 약 1년 남짓한 시간은 송계월의 함경도 시절(15세 이전) 만큼 알려진 바가 없다. 송계월 신문조서 작성시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대답¹⁵⁾과 은사 김용식이 YMCA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YMCA(기독교 청년회)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함경도에서 상경한 후 그녀의 행적이 첫 번째로 확인되는 곳은 경성여상 맹휴의 현장이다. 상경한 후 두 해째이자 여상 2학년이던 1928년 4월 여상의 한국인 교사로 당시 교무주임이었던 신상철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파면된 것에 항의하여 맹휴를 단행하였다. 맹휴 중 맹휴 반대 학생들과 충돌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수업중인 2학년 교실에 침입하여 수업을 방해(5월 2일)한다. 맹휴 가담자 33명이 훈계 방면되는데 반해 적극 가담자인 송계월 외 4명은 폭행 및 수업방해 혐의로 검사국에 송치(5월 12일)되고¹⁶⁾ 서대문 형무소에 9일간 구류되었다가 5월 19일 기소유에 처분으로

14) ‘나를 태운 남행열차는 흰 눈을 담뱃 들이켜서 김푸르게 느물거리는 북국의 동해 연안을 옆에 끼고 봄 향기 자욱하리라는 서울을 향하여 남으로 남으로 부지런히 달음질친다. 열다섯 살에 나이 어린 나는 장차 전개될 서울 첫 번 맛보게 되는 서울 유학! 모두 다 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희망이요 큰 포부 그것뿐이었다. 서울 학교(평장히 큰 건물) 서울 선생(괜히 동경되었다) 서울 여학생(왜 그리 상냥하고 믿음직스러웠는지) 이 모든 희망이 나와 오래오래 동행하리라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연기같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나의 좁디 좁은 시야에는 이러한 무수한 공상이 연두빛 우단필처럼 파랗게 빛나던 것이다.’ 송계월, 『청량리 정거장에 사라진 소년』, 『제일선』 3권2호, 1933.2.

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86. 500쪽.

16) 그들의 범죄내용은 오월 이일 오전 십시 경에 맹휴 반대생 이순규가 맹휴생 송계월이가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고 온 것을 조롱함으로 분이 나서 피차에 싸움을 하다가 이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김수남이라는 이학년을 구타하여 이주일 간 치료

석방(5월 19일)되었다.¹⁷⁾

이후 송계월은 경찰의 요시찰 대상이 되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의 불법적 행위(교장의 친인척 교사채용, 교사의 부당해임, 학교설비 미비)에 강경하게 저항한다. 학생들의 피해, 면학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학교당국에 건의를 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여상 시절 3번의 맹휴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 2번이나 구류된다.

식민지 시대 동맹휴학은 학원내의 사소한 문제로부터 발단되어 일제 식민지 노예교육에 대한 규탄, 나아가 총독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 발전하고 결국 민족독립을 부르짖는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발전된다.¹⁸⁾ 송계월이 주도한 경성여상의 맹휴 또한 독립정신이 강한 한국인 선생 파면에 반발한 것으로서 1920년대 여학생들의 본격적인 항일운동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송계월은 학교를 졸업한 후 개벽사 여기자 시절에도 경성여상의 동맹휴학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 1931년 5월 27일 경성여상 2학년생들이 부정교사의 복직문제로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다음날 전체 맹휴에 돌입한다. 이에 동교 졸업생은 모교의 장래를 위하여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하여 동창회를 열고 송계월을 대표로 선출한다. 송계월은 동창회 대표의 자격으로 교장을 방문하여 항의문을 전달하였지만 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사회에 호소하는 글을 쓰는데¹⁹⁾ 이것이 빌미가 되어 동맹휴학 선동자로 개

를 받을 만한 상처를 내었고 또 공부를 방해한다는 것이라는 데 이 사건의 주모자로 신체 구속을 당한 채로 송치된 여학생의 본적과 씨명은 다음과 같다더라. ▲평북 강계군 강계면 서부동 오팔삼 오옥녀(二〇)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하리 사육이은희(一九) 이상 삼학년 퇴학생 ▲평북 정주군 마산면 청정동 일삼구 방운화(二〇) 삼년생 ▲함남 북청군 신창면 신창리 송계월(一七) ▲전북 전주군 전주면 청수정 이팔사 김근원(一九) 이상 이년생. 『매일신보』, 1928.5.12.

17) 이 당시 송계월은 종로구 장사동 214번지에서 하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10, 5~69쪽.

19) 송계월, 「학교의 반성 없으면 사회에 호소」, 『매일신보』, 1931.5.29.

벽사에서 현장 검거된다.²⁰⁾

이처럼 송계월의 학생 운동은 “그저 붉은 뼈라를 뿌리면 되는 줄 알고 남에게 지지 않게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면 좋은 줄 아는” 여학생 기분이거나 치기가 아니라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것이었으며, 송계월은 이를 실행함에 두려움 없는 강인한 성격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후 그녀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서울여학생만세운동²¹⁾으로 이어진다. 1930년에 일어난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후발적 성격을 지닌다. 이 운동은 당시 여학생들이 민족문제와 여성문제에 직면하여 함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사건으로 근대 신여성문화운동의 전범이 되었다.

일찍이 여상의 맹휴를 주도하는 등 여학교 내에서 투사로 이름이 높았던 송계월은 여학생만세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30년 1월 14일 자신의 하숙집(종로구 가회동 48번지)을 만세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회합의 장소로 제공(송계월의 하숙터는 현재 서울시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으로 보존되어 있다)하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광주학생운동을 후속한 제2차 여학생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날(1월 15일) 여학생 만세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경성여상은 함께 하기로 한 중등학교 생도들이 오지 않아 만세를 부르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1월 16일 일제히 학교에서 만세를 부른다.

-
- 20) 관련 기사로는 『송계월 양 외 3명을 인치 취조 여하로 확대』, 『조선일보』, 1931.6.14, 『여성생 밀의소 습격 학생 입팔 명 검거, 주인 부부와 송계월 씨도 인치』, 『동아일보』, 1931.6.14, 『맹휴를 선동했다고 졸업생을 검속 교장에게 질문을 한 것도 원인 주목 끄는 여성분규』, 『매일신보』, 1931.6.15, 『여성생 28명 검거, 주인부부와 송계월도 인치』, 『중외일보』, 1931.6.15, 『여성졸업생 무죄로 석방』, 『매일신보』, 1931.6.16.
- 21) 1월 15, 16일의 시위는 서울 시내의 여고보와 여학교의 학생들이 주도하여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여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이라고 부른다. 여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이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데서 발단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여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근우회의 지도 아래 시위를 벌였다.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10, 2006, 56~57쪽.

이 사건으로 송계월은 1930년 1월 31일 보안법 위반으로 검사국에 송치되고 사상전문 이등(伊藤) 검사의 담임으로 취조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2월 11일 여학생만세운동으로 구속된 삼십여 명 중 여덟 명만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나머지는 전부 석방된다. 3월 18일 19일 양일간 여학생 만세운동 1, 2회 공판이 이루어졌고 3월 22일 판결이 언도된다. 허정숙 징역 일년, 최복순 징역 팔월, 이순옥 징역 칠월 집행유예 사년, 김진현, 최윤숙, 임경애, 박계월, 송계월 징역 유월 집행유예 삼년간의 판결을 언도 받는다. 판결 언도 당시 공소권을 포기하고 당일 출옥할 예정이었으나 공소권 포기 수속(피고들이 미성년자임에 미성년 피고의 법정대리인, 또는 부형들의 동의가 필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옥이 연기되었고 결국 3월 26일 여학생 만세운동의 피고 여덟 명 중 여섯 명(이순옥, 김진현, 최윤숙, 임경애, 박계월, 송계월)이 출감한다.²²⁾

송계월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체험이 일기로 남아 있다. 감옥에서 맞는 봄은 서럽기 그지없다. 함께 입감된 동무들로 위안을 얻지만 계절이 주는 ‘센티멘탈에게 헤게모니를 전취’당한다.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은사에게서 온 편지를 받는다. 계절과 일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단련시켜 후일을 위해 더욱 단단해지라는 은사의 질타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다.²³⁾ 선생의 편지를 받고 센치한 감정은 사치요, 다시 아름다운

22) 관련 신문 기사는 「시내 여교 만세사건 금일 검사국 송치」, 『동아일보』, 1930.1.31, 「구속자 중에도 팔 명만 기소 기소유예 등의 형식으로 입오 명은 금일 출옥」, 『동아일보』, 1930.2.11, 「허정숙 이하 8명, 보안법으로 기소」, 『중외일보』, 1930.2.11, 「공소 사실 요약」, 『동아일보』, 1930.3.19, 「제이차 학생만세 사건의 주도 여성 팔명 공판 개정」, 『중외일보』, 1930.3.19, 「만세 여학생 구형 일 년과 육 개월 징역」, 『동아일보』, 1930.3.20, 「만세 여학생, 금석에 출감」, 『중외일보』, 1930.3.25.

23) ‘그의 편지는 나의 약한 심장을 콕 찢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나의 불에 대고 감사함을 외쳤다. 나와 몇 동무들은 마치 꿈에서나 깨듯이 새 정신을 말쑥이 얻었다. 비록 철인(哲人) 간디가 가지고 있는 냉정한 이지를 근본적으로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 그러한 이지의 인간이 되려고 무한히 애썼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오히려 이 감옥에서 봄을 맞는 것이 한층 더! 그의 미가 심각하고 새로웠고 통쾌미가 아우성치며 나의 마음에 흐르는 것이었다.’ 송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할 때 감옥은 산지옥이 아니라 사상의 단련소요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봄과 감옥여성』은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옥중수기의 형태를 띠는데 여성의 옥중 생활을 묘사하는 가운데 감옥생활의 노고로 흔들리는 여성 내면을 서사화하여 여성적 글쓰기의 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사상성의 약화나 새로운 삶을 모색(사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センチ멘털을 비판하고 헤게모니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계월 수기의 독특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를 학생운동을 통해 실천적, 행동적으로 거부한 송계월의 일기와 수기는 제국주의사에 대한 증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여학교 시절의 경험 즉 동맹휴학과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은 송계월의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에 기반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때의 경험은 송계월 스스로 밝히듯 자신의 삶을 사회를 위해 바칠 수 있었던, 뜻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치는 이후 부인기와 여성문인으로서 역할 할 때 중요한 삶, 사상적 지침이 된다.

5. 여성 교육과 여성 직업 사이의 간극

송계월은 출옥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1931년 2월 경성여상을 졸업한다. 송계월 삶의 이력 중 가장 독특한 지점은 여상 졸업 후 정자옥 데파트 걸로서의 삶이다. 시기상으로 볼 때 여상을 졸업(1931.2)하고 개벽사 기자가 되기(1931.4) 전인 약 1, 2달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이 짧은 직업 생활을 통해 송계월은 여성 중등교육과 여성 직업 간의 괴리, 여성 직업의 사회적 취약성 등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식민지 시대 여성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인터뷰에 직업생활이나 일반 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별로 없다’는 대답과 학교에서 단순한 교과외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사회생활과 연결된 사회지식과 예의작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대답에서 사회생활을 첫 경험한 선배 직업여성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여상을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선망한 직장은 은행원이었으나 일본 남성과 여성들과의 차별대우로 인해 실제로 은행원이 되는 수는 극히 적었고 상점이나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송계월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와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자옥(일제때 조지아백화점-해방 후 미도파백화점-현재 롯데백화점) 데파트 걸로 취직한다.

근대 자본주의 소비문명의 핵심공간인 백화점에서 일하는 ‘데파트 걸’은 최고의 상품을 다루는 화려한 직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에서 14시간이고 임금은 20, 30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수많은 고객에게 하루 종일 웃음을 띠고 친절을 다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뿐이었으며 ‘상품과 애교’를 함께 팔아야 한다는 고백처럼 고객들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었다.²⁵⁾

학교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는 몰랐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사회는 너무나 험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사회에 처음 나올 때는 마음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방면에 대한 수난이 펍 많습니다. 여성들에게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잘못하면 타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잘 주

24) 송계월, 『직업여성의 슬회, 학원시대와 현재생활 - 잡지기자 송계월 양』, 『신동아』, 1932.3.

25) 『데파트걸의 비애』, 『조선일보』, 1931.10.11.

의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²⁶⁾

학창 시절에는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자기만 분투하면 무엇이든지 성공 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직업 전선에 나와 보니 사회는 여성에게 너무나 험(險)하였다.²⁷⁾ 더욱이 중등학교 시절 자신의 이상을 유감없이 실행하고 관찰시켰던 송계월에게 직업은 경제생활의 독립과 자기 발전의 실험적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컸을 것이다. 하지만 ‘데파트 걸’이라는 직업은 오히려 여성의 젠더적 취약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직업이었다. 약 2개월간의 짧은 데파트 걸 체험은 송계월에게 여성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계급의식을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파트 걸 체험을 통해 현실의 강한 견인력을 확인한 송계월은 ‘시간적 여유’, ‘활동범위의 광역성’, ‘나 개인의 향상’²⁸⁾을 위해 이직을 결심하고 『신여성』지의 여기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사회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6. ‘적성(赤城)’으로 글쓰기

『신여성』은 근대 잡지사에서 상업 여성지의 첫출발이자 신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풍속과 담론의 재현물이었다. 송계월은 1931년 『신여성』이 복간된 뒤 잡지의 재건과 흥행을 위해 개벽사에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인물이었으며, 그 문명(文名)으로 개벽사에서 발간하는 4개(『혜성』, 『별건곤』, 『신여성』, 『어린이』)의 잡지를 넘나들며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특히 『신여성』에서는 기자, 작가, 편집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송계월 입사

26) 『직업여성의 좌담회』, 『매일신보』, 1933.1.1~1.5.

27) 『명일을 기약하는 신세대의 처녀좌담회』, 『신여성』 7권1호, 1933.1.

28) 송계월, 『직업전선에 나선 여성들(五)』, 『매일신보』, 1931.11.8.

후 이전보다 여성주의적 기사나 문예가 훨씬 더 강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개벽사에 입사한 포부와 앞으로의 지향을 적확히 드러내는 것이 그녀의 필명(筆名)이다. ‘적성(赤城)’, ‘붉은 성’이라는 필명은 자신의 입론을 사회주의 혹은 계급주의(赤)적 여성에 두고 전투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서사화하겠다는 당찬 레테르이다. 이는 개벽사에 입사한 후 기자로서 쓴 첫 번째 글이자 ‘적성’이란 필명으로 쓴 유일한 칼럼인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²⁹⁾에 잘 드러나 있다.

신여성이란 이름은 과거에 비추어 색다른 명사이다. 이때의 ‘색채 다름’은 근대 문화의 향유자이거나 교만한 학력 수준을 가진 여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성과는 다른 여성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신진 여성, 신진 선구자, 책임 많은 소수 부대의 선구자로 풀이되는데 신여성 스스로의 자발적 각성과 함께 가정적, 사회적 폭력과 압제 속에 놓인 후진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할 책임을 지닌 새로운 여성임을 강조한다. 신여성이 오롯이 이 책임을 짊어질 때 신여성과 후진여성은 동지가 될 수 있으며 투쟁의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처럼 송계월은 그녀의 첫 번째 칼럼에서부터 ‘책임감 있는’ 신여성과 신진과 후진의 여성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여성주의 시각에서 글쓰기를 출발시키고 있다.

송계월은 당대의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성격적, 개인적 ‘하자’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결부하여 제시한다. 가난한 여성이 아이를 업동이 시키는 것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 대해 ‘가난한 어머니가 자식을 왜 부잣집 대문간에서 몇 시간을 떨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원인의 그 끝은 사회 제도의 불합리로 생긴 죄’³⁰⁾라고 지적하고,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봉건적 관습으로 인한 폐해라고 선언한다.³¹⁾

29) 송계월,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 『신여성』 5권4호, 1931.4.

30) 송계월, 『세상일기』, 『삼천리』 3권11호, 1931.11.

31) 송계월, 『악제도의 철폐』, 『동광』 29호, 1931.12.

_____, 『남성에 대한 선전포고, 각계 신구여성의 기염』, 『동아일보』, 1933.1.2.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송계월의 여성주의는 좀 더 세밀한 읽기를 요하는데 당대 여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서 송계월은 여성의 문제에 계급적 이해를 우선하고 있다. ‘가난한’ 어머니가 ‘부잣집’ 대문간에 아이를 버리는 것이며 ‘약혼 중 애인에게 정조를 허락’함에 대한 선행 조건은 그 남성이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에 따라 다르다.³²⁾ 즉 금일의 역사적 현실성은 남성 대 여성의 성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와 맞물린 부르주아 계급 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³³⁾ 그러므로 ‘진정한 여성 해방은 노동자 농민 해방이 있는 데서 되어 질 것이라는 것’³⁴⁾이며 계급 해방을 위해 강력한 투쟁과 집단적 연대를 주장한다. ‘사회적 임무를 어깨에 메고 집단적, 조직적 행동을 통해 착취와 계급이 없는 새 사회’³⁵⁾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송계월이 평론이나 칼럼을 통해 계급주의적 사고의 민낯을 드러냈다면 그녀의 소설이나 수필은 사회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이데올로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송계월의 소설 4편은 모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작

32) ‘이 문제를 계급적으로 분리시켜 1. 부르주아 내지 소부르주아들의 모여진 결합이 있겠고 2. 프롤레타리아들이 영커어진 결합의 약혼 형식이 있을 것이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 관한 (중략) 정조 요구를 받았을 때에 약혼 그것으로써 정조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다. 왜 그러나 하면 부르주아 ‘향락’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적 요구가 아닌 성적 유희, 호색적 자극 때문에 침예화한 퇴폐적 욕욕에 취한 부르주아 남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로 하고 싶다. (중략) 또한 후자에 치한 두 남자가 부르주아 사회의 소위 이름 붙인 약혼이란 형식 중이나 혹은 애인 중에 있다고 할 때에 역시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는 나는 허락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말하고 싶다. 첫째로 부르주아들의 행하는 혼인식이란 그것으로써 일반에게 표시할만한 경제 토대가 없는 것이 첫 조건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아무 실형도 없이 가장 진정한 결혼이 성립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에 사명을 매고 분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자기 개인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성도덕을 파괴하려고 싸우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무기가 될 것이다.’ 송계월, 『약혼 중 애인에게 정조 허락함이 죄이나?』, 『삼천리』 3권10호, 1931.10.

33) 송계월, 『여인 문예가 그룹 문제-최정희 군의 선언과 관련하여』, 『신여성』 6권3호, 1932.3.

34) 『명일을 기약하는 신세대의 처녀좌담회』, 『신여성』 7권1호, 1933.1.

35) 송계월, 『1932년을 당하여 조선 신진여성의 포부와 주장』, 『중앙일보』, 1932.1.1.

정신으로 하여 강력한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으로 무장한 프로문학적 성격을 지닌다.³⁶⁾ 그간 송계월의 소설은 작품 생산량과 수준의 미달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직설적인 목소리로 들어냄으로써 여성 동반자 작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³⁷⁾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거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투쟁 과정의 작은 일화들을 짧은 분량으로 다루는 송계월의 소설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는 것이 그녀의 '수필'이다.

식민지 시기 여성문인과 수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 1930년대에 신문과 잡지에 수필이 고정적으로 게재되면서 수필의 발표량이 월등하게 증가하였고 '무형식의 형식', '자기 고백적' 표현으로 여성문인에게 잡지사의 주문이 몰렸다.³⁸⁾ 가정의 신변잡기나 사적인 일상사, 가십적인 기사거리를 필요로 한 저널리즘적 영합이 여성문인과 수필을 한 끈으로 묶어버린 것이며 실제 당시 여성작가들의 연보를 보면 시나 소설에 비해 수필

36) 「공장소식」(『신여성』 5권11호, 1931.12)은 여직공을 주인공으로 노동현장에서 받는 억압의 젠더적 특수성을 실화적으로 보여준 여성주의 노동소설이다. 작가의 대표작으로 인정되는 「가두연락의 첫날」(『삼천리』 4권3호, 1932.3)은 여직공이 계급성에 눈뜨고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해 위대한 용사가 되길 다짐하는 프로문학의 전형적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젊은 어머니」(『신가정』 1933.2)이회는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비판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목적의식이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 직설적으로 전달된다. 「신창 바닷가」(『신여성』 6권11호, 1932.11)는 '벽소설'의 형태로 창작된 것으로 일본 식민지 수탈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되는 온유비업과 관련하여 작가의 고향인 신창의 영세어민들의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선동성을 갖는다. 진선영, 앞의 논문.

37) 1930년대 초반의 여성문단은 박화성, 강경애, 송계월, 최정희 등을 통해 프로문학적, 리얼리즘적 색채를 선보이는데 이는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남성 동반자 작가와 비견될만한 문학적 진보이다. 이들의 활동이 카프의 해체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여성문단의 지배적 성격으로 자리 잡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당대 사회에 대한 뾰족한 이해의 결과물로서의 여성 프로문학은 여성문학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지점이며 제1기와 제2기 여성작가 사이의 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답이 될 것이다. 그간 박화성, 강경애 작품을 대상으로 한 「동반자성」을 송계월의 작품으로 확대하여 고찰한다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38) 최정희, 「1933년도 여류문단총평」, 『신가정』, 1933.11, 45~46쪽.

이 유달리 많은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³⁹⁾ 이는 송계월 서사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문인과 수필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목과 함께 송계월 수필의 독특한 지점은 수필이 앞서 살핀 소설과 유사한 내용을 취하며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 수필은 매체에 의해 운용되었기 때문에 쓸 글의 주제가 미리 제시 되거나 편집자의 기획 아래에 묶이곤 하였다. 이로 인해 수필의 다양한 함의 가운데 논리성, 철학적성, 비판성 등은 탈각되고 필자의 개성과 서정에 중점을 둔 감상류, 신변 잡기류가 범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⁴⁰⁾

하지만 송계월의 수필은 자기 고백적이며 감상적인 체재를 다룸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적의식과 비판성, 지향의식을 드러낸다. 더불어 소설에서 다룬 주제를 연속하여 연작의 형태로 맞물리는 수필이 많다. 이러한 형태의 수필은 ‘르포’적 형태를 취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거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묘파(描破)하거나 함경도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점묘하는 가운데 제국에 저항하는 여성적 지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르포(reportage)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보고자가 자신의 식견을 배경으로 하여 심층취재하고, 대상의 뉴스나 에피소드를 포함시켜 종합적인 기사로 완성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르포는 신문의 보도기사와 기록문학 사이의 영역을 오가는 것으로 송계월은 기자와 문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음에 기자로서의 르포와 소설가로서의 르포가 적절히 혼용된 르포적 수필을 선보였다.

계절 수필 중 ‘봄’이 주제인 『봄과 추위』에서는 일시의 안정기(봄)에 안주하지 말고 ‘무섭고 험악한 폭풍’, ‘곤란과 위협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모든

39) 조영복, 『1930년대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작가의 성장』,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 새미, 1997, 133쪽

40) 문혜운,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글쓰기 장의 재인식 : 1930년대 수필의 장과 장르의 역학』, 『반교어문연구』 29, 2010, 58~59쪽.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주장한다.⁴¹⁾ 『우리 가을은 내일 아침에』서는 ‘가을’을 풍요, 여유, 아름다운 단풍잎으로 묘사되는 ‘부잣집 정원’과 ‘가을이 온 줄도 모르고 땀과 추위에 잠겨 일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울한 삶으로 대조한다. 같은 계절이라도 계급적 차이에 따라 맞이하는 심상이 다르듯 ‘우리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서 틀린 생활을 하고 있다.’⁴²⁾

고향이 주제인 수필에서는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이 대조된다. ‘사공의 딸이나 지주의 딸이나 시기, 질투, 암투 없이 평탄하던 옛날 고향의 설날 정경’은 이제 ‘명문가 집의 손녀가 인육시장에 팔려가고, 처녀들이 정어리 공장에서 인금 인상 투쟁을 하는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옛날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는 고향 어부들의 뱃노래는 현재 통곡과 비탄으로 변하였다.⁴³⁾ 폭풍우가 진동치고 함박눈이 퍼붓는 날에도 배주인의 압력으로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는 영세 어민들, 배가 얹어지고 어부들이 죽어가는 과정과 그들을 부두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의 애틋한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난파선』⁴⁴⁾은 벽소설 『신창 바닷가』와 함께 고향 북청 어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재구해 낸다. 송계월의 수필은 계급주의적 현실을 진단하고 묘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언제나 그 마지막은 강한 ‘새 힘의 결심’으로 충전되거나 ‘열과 피에 가득 찬 손을 합하여’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결속하자는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계월은 르포적 수필을 통해 사실적 현장을 퓌진히 묘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수필 장르의 미학인 철학성과 비판성을 성취하였다. 이렇듯 송계월의 수필은 당대의 수필과는 확연히 분기되는 독창적인 방식과 내용이며 미학적 차원에서 당대에 약화된 사상성과 비판성을 훌륭히 성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급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열정적으로 글쓰기를 수행하던 송계월은 조

41) 송계월, 『봄과 추위』, 『혜성』 2권3호, 1932.3.

42) 송계월, 『우리 가을은 내일 아침에』, 『신여성』 5권9호, 1931.10.

43) 송계월, 『진정한 새해 새날은 오리니』, 『매일신보』, 1933.1.7.

44) 송계월, 『난파선』, 『별건곤』 8권2호, 1933.2.

섭을 돌보지 않고 원고지를 들고 동분서주하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여학생만세운동 때 감옥에서 얻은 위병과 폐렴이 겹쳐져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받고 폐결핵 진단을 받는다. 여동생과 친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고 돌아오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계월은 끝끝내 고집을 피웠고⁴⁵⁾ 치료와 요양의 걱정 시기를 훨씬 넘겨 1932년 2월 고향으로 떠나게 된다. 처음 고향에 내려왔을 때에는 고열과 심한 기침, 각혈, 위통, 신경통까지 겹쳐져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위독하였다. 잠깐의 쪽잠 속에서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잠꼬대를 연발하였고 복청의 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정성으로 간호하였다.⁴⁶⁾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병이 호전되던 중 일신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된다. S모라는 사람이 출판회에서 “송계월이 아이를 출산하려 고향에 내려갔다”는 비열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소문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여 서울로 쫓아 올라가겠다는 것을 의사와 가족들이 간신히 말렸고⁴⁷⁾ 약 4개월을 더 정양한 후 1932년 9월 재상경한다.

서울에 상경한 후 송계월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욱 고달팠다. 상경한 후 채 몸을 추수를 새도 없이 개벽사에 복귀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자신과 관련한 추문을 듣게 된다. 자신의 소문에 대해 『데마에 항하여』, 『역선전에 대한 일언』⁴⁸⁾ 두 편의 평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지만 “S모 양이 옥동자를 안고 청량리 역에 내렸다”는 새로운 소문이 더해져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⁴⁹⁾

병이 완쾌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상경과 증가된 정신적 고통으로 각혈과 혼절이 연속되었다. 병원과 잡지사를 오가는 와중에서 소설과 수필을 연속하여 발표하였고 참된 창작을 위해 ‘어떤 그룹의 멤버로서 조직을

45) 이석훈, 앞의 글.

46) 송계월, 『병상의 편상-북국 어촌에서』, 『신여성』 6권6호, 1932.6.

47) 송정덕, 『언니를 영원의 길로 보내며』, 『신여성』 7권7호, 1933.7.

48) 송계월, 『데마에 항하여』, 『신여성』 6권11호, 1932.11.

송계월, 『역선전에 대한 일언』, 『제일선』 2권10호, 1932.11.

49) 사우춘, 『거리의 굴뚝새! 풍문제조업자』, 『신여성』 6권12호, 1932.12.

통하여 연구하고 창작⁵⁰⁾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강렬한 정신을 육체가 견디어 내지 못하였다. 다시 일어설 수 없겠다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고향에서 올라온 여동생의 손에 의지하여 함경선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동안 송계월의 강한 면모만이 부각되어 여성적인 면모나 섬세한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많은 지인들이 증언하는 바 송계월은 스포츠와 영화, 음악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취미는 오히려 ‘입으로는 푸로를 말하지만 그 사생활은 몹시도 호화로운 허영의 여성’, ‘이중인격자’라는 데마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⁵¹⁾ 하지만 실상 송계월은 지독히도 가난하였다.

생전 계월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윤성상의 평가처럼 그녀는 몹시도 ‘냉정하고 이지적인 인간’이었으며 ‘침착한 판단력과 과단’을 가졌고 ‘이 사회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한’ 신여성이었다.⁵²⁾ 가장 앞선 자리에서 계급과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글로써,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였다. 그렇기에 계월은 자신을 향한 터무니없는 데마에 ‘피를 토하듯’ 저항한 것이다.

윤성상의 말처럼 결국 계월을 죽인 것은 ‘가난’과 ‘무정’이었다. 1933년 3월 귀향한 후 칠십여 일을 촌보도 옮기지 못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굶은 비 내리는 1933년 5월 31일 오후 1시 5분 북청군 신창면 자택에서 23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장결핵이었으며 주검은 장진 공동묘지에 묻혔다. 송계월 사후 여러 잡지사에서 특집 기획을 통해 그녀의 요절을 애도하였다.

7. 나오며

송계월은 ‘애라’나 ‘유라’가 아니다. 송계월은 ‘송계월’이다. 이것이 본

50) 송계월, 『부인기자의 일기』, 『신동아』, 1932.11.

51) 이찬, 『송계월 양의 삼주기에』, 『조선중앙일보』, 1935.5.30~6.2.

52) 윤성상, 『그 길이 그렇게도 바뻐소』, 『신여성』 7권7호, 1933.7.

논문의 출발점이다. 송계월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소개된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송계월의 서사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여 송계월이라는 신여성이 식민지 현실을 통해 계급주의를 자각하는 과정으로서의 ‘자기서사’와 그 형상화적 결과물인 문학텍스트(문학 서사)를 분석하였다. 이 두 겹의 서사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와 분석이 송계월의 서사를 여성사, 문학사, 제국주의사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송계월의 고향이자 요양지였던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은 척박한 환경과 불모의 땅이라는 공간적 의미와 함께 기질을 배태한 요람적 성격을 지닌다. 송계월은 강인한 성격과 생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을 함경도적 기질에 두고 있으며, 이를 사회에서 실천하는 현장 경험은 경성여자상업학교 시절에 이루어진다. 계월은 여학교 시절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운동과 투쟁으로 행동화하였다. 이후 데파트 걸 체험은 학교 교육의 이상주의와 현실의 간극을 체험하는 장이었고 이를 통해 여성 문제의식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계급의식을 점화하게 된다. 개벽사에 입사한 후 ‘붉은 성(赤城)’이라는 필명은 자신의 입론을 사회주의 혹은 계급주의(赤)적 여성에 두고 전투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서사화하겠다는 당찬 레테르이다.

송계월은 여성의 문제에 계급적 이해를 우선하고 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노동자 농민 해방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급 해방을 위해 강력한 투쟁과 집단적 연대를 강조한다. 송계월이 평론이나 칼럼을 통해 계급주의적 사고의 민낯을 드러냈다면, 소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작 정신으로 하여 강력한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으로 무장한 프로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르포적 형태의 수필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거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묘파(描破)하거나 함경도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점묘하는 가운데 제국에 저항하는 여성적 지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송계월의 문학 서사는 계급주의적 현실을 진단하

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한 결속과 투쟁을 강조하는 선동성과 정론성을 갖는다.

송계월의 삶과 문학은 당대 신여성들의 갖가지 모습을 압축하는 전형이었다. 신학문과 새로운 문물예의 동경, 식민지 조선 현실에 대한 고민,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투사,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창작행위, 여성을 둘러싼 소문 등은 고스란히 그녀의 삶과 작품 속에 녹아 있다. 그러므로 송계월의 ‘겉’ 서사는 식민지 과도기를 살아낸 한 신여성의 미시사가 아니다. 신여성이라는 존재론적·사회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당대와 길항하였다. 이것이 굽직한 식민지 역사와 겹쳐질 때 송계월의 삶은 식민지 여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 『신여성』 5권4호, 1931.4.
- 『학교의 반성 없으면 사회에 호소』, 『매일신보』, 1931.5.29.
- 『우리 가을은 내일 아침에!』, 『신여성』 5권9호, 1931.10.
- 『약혼 중 애인에게 정조 허락함이 죄이나?』, 『삼천리』 3권10호, 1931.10.
- 『직업전선에 나선 여성들(五)』, 『매일신보』, 1931.11.8.
- 『세상일기』, 『삼천리』 3권11호, 1931.11.
- 『어촌 있는 동생에게—비료회사에서 노동하는 동생에게』, 『어린이』, 1931.12.
- 『공장소식』, 『신여성』 5권11호, 1931.12.
- 『북청의 점묘』, 『삼천리』 3권12호, 1931.12.
- 『악제도의 철폐』, 『동광』 29호, 1931.12.
- 『1932년을 당하여 조선 신진여성의 포부와 주장』, 『중앙일보』, 1932.1.1.
- 『직업여성 이동좌담회』, 『신여성』 6권2호, 1932.2.
- 『직업여성의 술회 학원시대와 실제생활—잡지기자 송계월 양』, 『신동아』, 1932.3.

- 『가두연락의 첫날』, 『삼천리』 4권3호, 1932.3.
- 『여인문예가 그룹 문제—최정희 군의 ‘선언’과 관련하여』, 『신여성』 6권3호, 1932.3
-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삼천리』 4권3호, 1932.3.
- 『봄과 추위』, 『해성』 2권3호, 1932.3.
- 『봄과 감옥여성』, 『신여성』 6권4호, 1932.4.
- 『병상의 편상—북국 어촌에서』, 『신여성』 6권6호, 1932.6.
- 『육아문제 이동좌담회』, 『신여성』 6권10호, 1932.10.
- 『부인기자의 일기』, 『신동아』, 1932.11.
- 『신창 바닷가』, 『신여성』 6권11호, 1932.11.
- 『테마에 항(抗)하야』, 『신여성』 6권11호, 1932.11.
- 『역선전에 대한 일언』, 『제일선』 2권10호, 1932.11.
- 『북국의 동무』, 『신동아』, 1932.12.
- 『남성에 대한 선전포고 각계신구여성의 기염(二)』, 『동아일보』, 1933.1.2.
- 『직업여성의 좌담회』, 『매일신보』, 1933.1.1~1.5.
- 『진정한 새해 새날은 오리니!』, 『매일신보』, 1933.1.7.
- 『명일을 약속하는 신시대의 처녀좌담회』, 『신여성』 7권1호, 1933.1.
- 『젊은 어머니』, 『신가정』, 1933.1~5.
- 『청량리 정거장에 사라진 소년』, 『제일선』 3권2호, 1933.2.
- 『난파선』, 『별건곤』 8권2호, 1933.2.

2.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86, 500쪽.
- 김경, 『디오게네스의 연인들』, 한국기독교연구원, 1992, 188쪽.
- _____, 『한국 기독교 건국 공로자 열전』, 고려인쇄출판사, 2001, 217쪽.
- 김주리, 『근대소설과 육체』, 한국학술정보, 2009, 246쪽.
- 유진오, 『수난의 기록』, 『봄』, 한성도서, 1940, 377쪽.
- 조영복, 『1930년대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작가의 성장』,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 새미, 1997, 133쪽

진선영, 『송계월 전집』, 역락, 2013, 406쪽.

논문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5~69쪽.

김문집, 「『수난의 기록』과 『패강랭』」, 『동아일보』, 1938.1.21.

문혜운,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글쓰기 장의 재인식 : 1930년대 수필의 장과 장르의 역학」, 『반교어문연구』 29, 2010, 33~63쪽.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여기자 송계월」, 『여성과 사회』 14, 2002, 180~195쪽.

박혜숙, 「여성과 자기서사」,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17~240쪽.

사우춘, 「거리의 굴뚝새! 풍문제조업자」, 『신여성』 6권12호, 1932.12.

송정덕, 「언니를 영원의 길로 보내며」, 『신여성』 7권7호, 1933.7.

윤성상, 「그 길이 그렇게도 바뻐소」, 『신여성』 7권7호, 1933.7.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10, 2006, 49~80쪽.

이석훈, 「유성-고 송계월의 애도」, 『신여성』7권7호, 1933.7.

이찬, 「송계월 양의 삼주기에」, 『조선중앙일보』, 1935.5.30~6.2.

진선영, 「송계월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54, 2013, 463~490쪽.

최정희, 「1933년도 여류문단총평」, 『신가정』, 1933.11, 45~46쪽.

Abstract

A Study about the Narrative of 'Song Gye-wol'

Jin, Sun-Young

Song, Gye-wol is not 'Aera' or 'Yura'. Song, Gye-wol is the Song, Gye-wol. This is the start of this study. Song, Gye-wol is not disclosed fundamentally, but distorted, or not to be appreciated the real value. This study makes a structure of Song, Gye-wol's writings chronically and analyzes literature text and 'Self story' that new woman, Song, Gye-wol awares of the social class system through colonial reality.

Bukchong, Song, Gye-wol's hometown, has a meaning of infertile circumstance and wasteland, but it has a meaning of strong vitality of Hamgyeong Province's people who cultivate the land and it has a cradle nature to express of Song, Gye-wol's social disposition. Song, Gye-wol's strong characteristic and vitality are originated from Hamgyung-do's disposition, and its practical site experience is executed in Kyungsung Woman Business School year. Gye-wol found contradictions of colonial society in her school year, and behaved as a fight and movement.

After that, the experience of depart girl was a experience between reality and idealism of school education. With this experience, she started to have critical mind of woman and the class about woman worker. After having a job in Gaebuk magazine, she had a pen name, Red Castle. This pen name was a firm label to describe real world's problems with argument;

socialism or classed women.

Song, Gye-wol put the understanding of the class system above woman related problems. In other words, true woman liberation would be located in laborers and farmers' liberation, and she insisted on strong fight and group solidarity to liberate the class.

Song, Gye-wol revealed the naked face of the class thought's through reviews and columns. Her novels have pro-literature characteristics armed with strong class and fight consciousness. Her essays have reportage convention to treat violence on labor site, to describe the social pressure on laborers, and to portray Hamgyung-do woman's strong vitality. And, her essays suggested woman's way to resist on the empire. Song, Gye-wol's literature story checks the class actualities and has factiousness and resonal argument to strengthen the strong unity and fight of proletariat to overcome it.

Song, Gye-wol's life and literature was typical form to compress several aspects of new woman in that era. New study and longing for new item, worry about colonial era in Chosun Dynasty, a fighter of nationalism movement, woman advances into society, creation as a woman's self-expression, and rumors surrounded woman are melted in her life and literary work. Therefore, Song, Gye-wol's 'double' story is not a microhistory about a new woman who endures colonial era's transition period. It resists on that period with having a perception of reality objectively based on ontologicistic and social basis. When it is overlapped with colonial history, the life of Song, Gye-wol could be a colonial woman history itself.

Key words : Song gye wol, Self-Narrative, Double Narrative, Socialist, Red Castle.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